



총회를 마친 후, 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네번째가 회장 진유철 목사, 세번째가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에 진유철, 부회장에 박효우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 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수석부회장에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를 인준했다.

교협은 5일 오전 10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43대 회장 진유철 목사,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를 만장일치로 박수를 통해 인준했다. 진유철 목사는 전 회기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으로 자동 추대됐고 박효우 목사는 단독후보 함에 따라 선거 없이 수석부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진유철 목사는 “거룩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요즘 교회가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협이 본질을 회복해서 사회 가운데서 쓰임 받도록 노력하겠다. 1년 동안 충성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란다. 많은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효우 목사도 “회장님을 잘 보좌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협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임원진 구성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한 달 후 취임감사에예 전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부 예배에서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교회’(눅14:1-11)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한중수 목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다른 점은 사물을 바

라보는 관점”이라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목회자를 평가할 수 있다. 복을 받는 자의 초점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늘 주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또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목회자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사회 변혁의 목사, 기도 강용운 목사, 성경봉독 차권희 목사, 설교 한중수 목사, 광고 박세헌 목사, 축도 지용덕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12월 2일 오후 4시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월드비전 뉴욕-뉴저지 구호 박차

최대 피해지역인 동부 해안 장기복구 곧 시작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Sandy)가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여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가운데,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이 주요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은 허리케인 샌디의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 뉴저지, 펜타키에 조사반을 파견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현지 교회 및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구호품을 보관하고 있던 월드비전 브롱스 물류 창고가 3.4피트 높이로 침수되면서 초기 구호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피했던 직원들이 복귀하면서 물류 창고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에 있는 국내 재난 구호 본부(National Domestic Disaster Headquarter)를 출발한 구호품 적재 차량이 피해 지역에 도착하는 대로 곧 구호품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월드비전의 구호품목 리스트에는 식량, 청소 용품, 개인 위생 도구, 담요, 방수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월드비전 피해 조사반은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이 세제를 비롯한 청소 도구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반면, 폭설이 내린 웨스트 버지니아와 펜타키에서는 담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초기 재난 구호 활동이 끝나면 허리케인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동부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복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발생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당시, 4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물류 창고를 뉴올리언즈에 개설하고, 82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318,000명에게 전달한 바 있는 월드비전은 지난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6개 자연 재난에서 4만 명의 피해자들을 도와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재난 구호 활동에도 앞장 서고 있다.

한편, 허리케인 샌디 구호 활동 도 네이션을 위해서는 ‘GIVEUSA’ 문자를 777444로 보내어 10달러씩 기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 한국어 안내 전화 1-866-육이오-1950를 이용할 수도 있다.

조요한 기자

미주장신 개교 35주년 맞이 후원의 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침체를 겪고 있는 오늘날 미주 한인 신학교의 대표주자로 나날이 발돋움하고 있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목사)가 올해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와 관련해 이 학교는 미국 땅에 한인 신학교를 세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나누고, 오늘날 잊혀져 가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함에 앞장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 배출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다짐과 선포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른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 35주년 개교 기념 감사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는 11월 20일(화) 오후 7시부터 LA 한인타운 소재 옥스포드팔래스 호텔(745 S. Oxford Ave. LA, CA 90005)에서 개최된다.

이상명 총장은 “21세기 이민목회

현장과 복합 문화 사회,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을 이끌 우수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산실로서 선교가 발돋움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본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한인 명문 신학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민사회와 교회와의 협력관계 구축과 지속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기독교 기관, 단체, 성도들의 지속적인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다.

본 행사에서는 연회 식사를 비롯하여 찬양, 연주, 간증 등의 다양한 순서가 진행된다.

행사 참여 및 후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로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562-926-1023/www.ptsa.edu)로 하면 된다.

정한나 기자

오바마, 美 역사상 재선 성공한 첫 흑인 대통령

6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4년 전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진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재선 고지에 오름으로써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흑인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기록도 갖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3표를 확보해 206명에 그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눌렀다. 7일 오후 7시 30분(미 동

부시간) 현재 전국 득표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51% 지지를, 롬니 공화당 후보는 48% 지지를 각각 얻었다.

그가 최대 경쟁주로 꼽히는 오하이오, 플로리다, 위스콘신에서 내리 승리하자 CNN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낙태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낙태 시술 기관에 금전적 후원을 지지

한다.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보수복음주의의 교계의 입장과 정반대 되는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했지만 롬니 후보는 물론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고야만 것이다. 선거 운동 막판에 보수복음주의를 이끌고 있는 빌리 그래함을 만나 그의 지지까지 얻어냈지만 아직 미국은 이단으로 알려진 물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셈이다. 김영신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이·이·도·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기부천사 **김장훈**이 선택한 **아이토크비비**

비싼 집전화 요금! 몰랐다면! 이제 바꾸자!
최대 \$100 크레딧 보상*
 행사기간 2012년 11월 15일 까지

無 계약기간도 없다! * **개통비도 없다!**

모르셨습니까? 아이토크비비는!
 ▶ 집전화 미국·한국 무제한 통화
 ▶ 휴대폰에서도 국제전화 무료 (매월 500 분)
 ▶ 미국 전화번호·한국 070 번호 동시 제공**
 ▶ 365일 한국어 서비스센터 운영
 ▶ 30일 환불보장 실시

화나셨다면! 이제 집전화 바꾸세요!
 AT&T, Vonage, Comcast, Time Warner, COX, Qwest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미국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화 가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04호)
아이토크비비 213.559.7557 |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0일 품질의 자신!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100크레딧: 글로벌플러스 플랜 가입자에 한해 \$100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 외 가입 옵션에 따라 해당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해당 무료 크레딧은 13번째 달에 적립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로밍(당월 3개월 이상 사용시) 및 통화, 로컬의 장거리 및 국제 통화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많은 통화는 \$20 크레딧(Deposit)을 받습니다. 모든 통화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서비스 수수료 및 부가요금, \$2.95/분기 부과)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후원업체는 iTalk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고수 연선 가입에 한해 이용가능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역시 서비스 예시 이외 납부한 월 이후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 발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지역 통화는 무제한 통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korea.italkbb.com 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발간하는 기준, 아이토크비비(www.italkbb.com)는 2012년 11월 8일 현재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국양찬양과 민요로 은혜의 도가니... 실로암콘서트

관현맹인전통예술단과 조이폴 중창단의 실로암콘서트가 2일 오후 7시 30분에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콘서트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최 미주순회공연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선한목자장로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동신교회 등 남가주 일대 한인교회에서도 최근에 개최됐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사장 김선태 목사(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장)는 "이번에 관현맹인전통예술단과 조이폴중창단을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마음을 다해 준비한 성가곡과 우리 가곡, 전통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메시지를 전해 왔다.

그는 또 이어 "이 예술단과 중창단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으로 음악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활동하는 팀이다. 특히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궁중 음악기관인 장악원에 시각장애인 음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공연 장면. 이들의 공연은 선한목자장로교회, 남가주동신교회, LA한국교육원, 나성영락교회, UCLA 등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악가를 소속시켜 녹봉과 관직을 주었던 관현맹인 제도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2011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뜻깊은 사업이다"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오늘 이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도한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프로그램은 성가곡과 가곡, 설장구 합주, 국양찬양과 민요 및 합주로 구성돼 청중에게 감동을 주

는 동시에 많은 박수를 받았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선교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돼 실로암학습지원센터, 실로암재활지원센터, 실로암근로사업장, 점자도서관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개관 이래 300여 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일 평균 800여명, 연간 29만여 명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1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 전문기관이다.

토마스 맹 기자

갈보리민음교회 강진웅 목사 담임 취임

5C 비전 갖고 새로운 출발 알려



갈보리민음교회의 박형택 목사와 강진웅 목사

'교회 통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 갈보리민음교회가 4일 동 교회 예배당에서 제2대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제2대 담임목사에 정식으로 취임한 강진웅 목사는 이날 "갈보리민음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양떼를 목양하는 특권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면서 "부족한 저를 총성된 목사로 여겨서 담임목사로 세워주시는 갈보리민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박형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대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 결합을 깊이 이루며(Communion),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든든히 하고(Community), 자녀들과 젊은이들,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이 연결되게 하고(Continuation), 미국사회와 이민사회에 신령한 축복을 나눠주며(Contribution), 나아가 세계선교의 사명(Mission)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

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강진웅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는다"면서 "이제 교회 이름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에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란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갈보리교회는 당초 박형택 목사가 8년간 시무해 오다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를 시무하던 강진웅 목사에 교회 대 교회로 통합을 제안했고, 이에 양 교회의 공동의회 수순을 거쳐 지난 4월 통합예배를 드림으로 아름다운 통합이 이뤄졌다.

취임식에 앞서 드러진 장로임직에 대해서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가 '기적을 이루는 사역'(요6:1-13)이라는 제하에 설교했고, 이어 박형택 목사의 인도 하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도회장 이상훈 목사가 서약 및 권면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한편, 갈보리민음교회는 11월 한달간 다채로운 축제를 마련한다. 오는 16일 오후 7시에 힐링 콘서트가 열리며, 21일 오후 7시에는 이재철 목사(1백주년기념교회)를 초청해 청년토크 콘서트를 연다. 정한나 기자

최병수 목사, 예친교회서 가을부흥회 인도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되는 교회



최병수 목사가 예친교회 가을부흥회에서 메시지를 선포했다.

브레아에 위치한 예친교회(Jesus' friends community church, 담임 김민재 목사)가 최병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26일부터 사흘간 가을부흥회를 가졌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들'의 줄임말인 '예친'이라는 단어를 이름에 붙인 예친교회는 성도수 70여명의 작은 개척교회다. 인랜드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던 김민재 목사가

2년 전 개척을 향한 부르심과 비전을 받고 현 위치에 교회를 개척해 시무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서울에서 아주대학교(영어학)를 졸업하고 1985년 도미 후 아주사파시퍼대학과 하가드신학대학원에서 MAWL 학위와 M.Div. 과정을 마쳤다.

강사로 나선 최병수 목사(Grace Silver Ministry Center 대표, 전 인랜드교회 담임)는 현재 예친교회 설교목사로 섬기고 있기도 하다.

최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신앙인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삼상13:1-7),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마16:13-20), 우리 교회 잘 가고 있는가?(삼하23:1,13-17), 주님 내가 누구관대 나를(삼하12:23-3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주소: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전화: 714-257-9522

정한나 기자

[단신] 건강한 교회 위한 대화법 강의 열린다

대화법 강의 제5기가 시작된다. 대화 가운데 상처와 오해가 발생해 이민교회와 가정, 개인이 고통받는 시대다. 이 대화법은 말의 위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말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주최측에서는 목회자 및 교사, 부부들의 참여를 적극 권하고 있다. 이 강의는 11월 10일, 17일, 24일, 12월 1일 4주간 토요일마다 열리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이다. 1인당 등록금은 60불, 부부일

경우 둘이 합쳐 100불이다. 11월 9일 전 조기등록하면 50불, 80불로 각각 할인된다. 강의 내용은 1주: 왜? 나는 대화가 어려운가?(대화법의 정의와 문제점 인식 알기), 2주: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경청법 배우기), 3주: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공감법 배우기), 4주: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전달법과 코칭 배우기)이다. 문의: 562-896-0691(손태정 목사), 주소: 18021 Norwalk BL #201 Artesia CA90701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학 박사 과정 안내
2주 세미나: 2013년 01월 14일 - 25일까지

Los Angeles Campus DMin Cohort Program

First Course	Changes in Korean Preaching Dr. Sam Park (Jan 14 -18, 2013)
Second Course	Critical Interpretation & Project Development II Dr. Valerie Miles-Tribble (Jan 21-25, 2013)

* New students must take DM6031 Interpretation & Project Development I on the Main Campus in Berkeley during January 21-25, 2013.

Contact Persons

Dr. Hyo Shick Pai:
(661) 755-5442 drhyopai@gmail.com
Dr. Hoi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Visiting Professors:
Dr. Bob Wallace:
baptistbob@verizon.net;
Dr. John Harbison:
johnharbison@ccccollege.edu
Dr. Chun Il Cho:
Chunilcho@yahoo.com

More Information: absw.edu

Los Angeles Campus ABSW/D. Min Cohort
760 South Westmoreland Avenue, Los Angeles, CA 90005-1499

140년이 넘는 신학교로 ATS 정회원, GTU 소속 학교로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



남가주동신교회가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리고 있다.

“성전 이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자”

남가주동신교회 새 성전서 첫 주일예배

미국 교인들 ‘축복’ 메시지 남겨… 훈훈한 情

극심한 불경기에도 성전 확장 이전을 이뤄내 화제가 된 남가주동신교회가 4일 새 성전 이전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지난 7월 종전 예배 처소에서 3분 떨어진 대형교회 이스트사이드크리스천교회 건물을 매입, 5배 넓어진 규모의 자체 성전을 갖게 됐다.

이날 2부 예배에서 손병렬 담임목사는 “(성전 이전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고

맙다”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눈물로 여기까지 왔다”며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행2:42-47)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손 목사는 “교회는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어야 한다”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왕성하게 일하는 교회, 영적·수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됨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복있는 교회가 되자”고 성도들을 권면했다.

새 예배 처소의 규모는 총 부지 면적이 8.2에이커에 이른다. 종전

부지 면적이 1.8에이커이므로, 5배 가량 넓어지는 셈이다. 본당 수용 인원은 1천 명이다. 뿐만 아니라 부설 유치원과 부설 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3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 4채도 교회 부동산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이스트사이드교회 교인들이 10월 말 이 장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이전해 오는 남가주동신교회를 위해 축복의 메시지를 교회 벽에 포스트잇으로 남겨 훈훈한 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정하나 기자

“교회가 방송선교 이끌어 달라”

1200만불 목표로 모금 만찬 및 공개방송

미주복음방송(이하 GBC)이 지난 1일 세리토스 웨라톤 호텔에서 자체 스테이션 구입 완료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김영길 이사장



박신욱 사장

이날 행사에는 교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목회자, 성도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GBC는 지난해 2월 말 1200만불 가액으로 스테이션 구입 당시 공개모금 방송을 통해 다운페이먼트 자금 200만불을 마련했고, 나머지 1천만불 가운데 은행 용자로 9백만불을, 미방송사로부터 차입한 ‘오너캐리’(Owner Carry: 오너가 구입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형식)로 1백만불을 지불했다. 이는 당시 연 이자 3퍼센트로 3년 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현재로서 차입한 지 20개월이 지났으니, 앞으로 1년 반 이내에 이자 20만불을 포함해 총 1020만불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스테이션 구입 완료를 위한 모금 목표액 1200만불(1만 구좌) 가운데 이날까지 모아진 약정 현금은 약 390만불이며 익일 12시간 진행된 모금방송까지 더해 600만불 가량 모금했다. GBC 이사장 김영길 목사(감사함인교회)는 이날 행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지만 희생적으

로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됐다”며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전파를 위해 희생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장 박신욱 목사는 사역보고 순서를 통해 “GBC가 앞으로 ▷미주를 넘어 지구촌 8백만 한인동포를 위한 글로벌 복음방송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패밀리 차세대 방송 ▷미주의 이민자 다민족과 열방의 미전도종족을 위한 선교방송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면서 참석한 2백여 목회자 및 후원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아울러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남가주 전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 달라”면서 “교회가 단순한 후원이 아닌, 주체가 되어 방송 선교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기도에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GBC는 현재 AM1190 공중파로 남가주 일대에, AM880 공중파로 하와이에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문의: 213-381-1190 정하나 기자



성도들이 새 성전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장로성가단 제19회 정기 연주회

지난 1992년 창단돼 활발히 선교 찬양 공연을 해 온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정도영 장로)이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영빈 목사)에서 제19회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교파를 초월한 70여개 교회에서 모인 107명의 장로들로 구성됐으며 지금껏 미국 국내를 비롯한 중국, 일본, 브라질 등지에서 120여회 이상의 선교 찬양 공연을 해 왔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모국 순회 공연, 중국 선교 공연, 9.11 테러 희생자 추모 찬양, 토론도 순회 공연, 남미 순회 공연, 브라질 상파울로 시의회 선교 찬양, 일본 순회 찬양 공

연 등이다.

지휘는 남가주장로성가단의 신임 지휘자로 부임한 김원재 씨가 맡는다. 김 씨는 신시내티 음악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해 이 대학원에서 합창 지휘와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으며, 클리블랜드 오페라단 등에서 활약한 바 있다.

반주는 이하늘 씨가 맡고, 소프라노 장혜지 씨를 비롯해 KAMA 어린이합창단 등이 찬조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 관련 문의는 전화 213-761-5656로 하면 된다. 세계비전교회의 위치는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91326이며, 전화는 8180-363-5887이다.

정하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의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6-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요한복음 14장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일깨워 주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천국소망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1-3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신약성경 중에서는 내세의 궁극적 소망이 되는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죄에 직접 전가된 후손의 자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통에 시달리며 영혼은 물론 정신과 육체, 생활전폭에 있어서 날마다 지옥의 그림자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는 실패로 인한 절망, 질병에 대한 고통, 모든 삶의 꿈이 허무어져 가는 고통,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분복을 얻어 누리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며 쫓기며 살아야 하는 괴로운 입장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당하는 세상조건에서의 입장이 아닌 그보다 더 힘겨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인 고통보다는 인생고에 시달리는 오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으로 신령한 다른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2-3에서 말씀하시는 내세소망은 이 땅 위에 육체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곧 하늘에 영원한 처소가 마련된다는 말씀이고 그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4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에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듯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어조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빌립의 질문은 상당히 어긋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고 과거완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아직 보질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14 이하에서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찾아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셨을 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약식세례입니다. 원래는 물 속에 몸을 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임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박혀서 죽어 물 속에 장례 치루고 이제부터는 내 입장에서가 아닌 예수님 입장의 신앙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세례받는 참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심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배웠습니다. 위(位)는 세 분이 달라도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몸이 하나입니다.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인식을 바로 시키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 오시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낱한시에 나타나신 장면은 마태복음 3장 밖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2:6-8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10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의 입을 통해 증거된 말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증거된 말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깨닫는다면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이후부터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입장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

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증거 하시면서 자기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12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믿고 구원얻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도해서 하늘나라로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얻어 성령받은 사람들에 의해 땅 위에 천국으로 가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18-19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교회와의 직선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못해서 책벌을 받으면 천국에도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곧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 우리가 복음의 제물이 되고 땅 끝까지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통한 봉사로 진실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땅 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깨닫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 생애를 바쳐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 드리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장받았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6-9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현세의 삶에 위해,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가고 있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나라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에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손길이 항상 우리 뒤에서 뒷바라지해 주셨기에 지금껏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모자람이 없어 왔고 앞으로도 모든 일에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 가야 하겠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보다 자기수단과 방법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많음이 안타깝습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장래에 이 선교라는 사명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교의 제물로 열납되고 선교에 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뭍에 서둘러 참여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미국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정교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s</p>	<p>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p> <p>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열매들을 양성</p> <p>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의 비전</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p>	<p>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p>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쳐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11월 13일 (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정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CCM 사역 펼쳐온 형제 듀오 “사랑이야기”



김현중, 김재중으로 구성된 듀오 사랑이야기의 콘서트가 열렸다.

20여 년 간 CCM 사역을 펼쳐온 형제 듀오 ‘사랑이야기’의 가든콘서트가 지난 28일 오후 이백호 목사의 자택에서 열렸다.

김현중(46)과 김재중(43) 두 형제가 결성한 그룹 ‘사랑이야기’는 2집에 수록된 ‘주님의 숲’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날 콘서트에서 두 형제는 적적

맞는 호흡으로, 통기타 두 대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과 편안한 음색, 그리고 숲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로 좌중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사랑이야기’는 음악적으로도 탄탄하다. 대중음악과 CCM을 넘나드는 활동을 해 왔으며,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아 1년의 반은 외국에서 집회

를 한다. 이날 콘서트에 참여한 이 모 씨(38·LA한인타운 거주)는 “청량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되돌아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콘서트 장소를 제공한 이백호 목사는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지만 정작 먹을 수 있는 물은 없다. 세상에 사랑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찾기 힘든 서늘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들이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자리를 마련코자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을 순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발자취를 그대로 답안 신간 ‘순례자의 길(부제: 성지 이스라엘을 찾아서)’을 펴낸 바 있다.

정한나 기자

행사 소식 및 단신

YNOT 지역 섬김 프로그램 사역 올해로 9주년 맞아

2004년에 나섬영락교회와 YNOT Foundation이 시작한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지원금’ 사역이 올해로 9주년을 맞았다.

나섬영락교회와 YNOT은 지난 9년간 이 사역을 통해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한인 및 이웃 타인종들을 섬기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총 190만 달러 이상을 전달했다.

YNOT에 따르면,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지원금 사역의 첫번째 목적은 한인사회를 섬기는 비영리 단체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변화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두번째 목적은 종래의 방식으로 제공받는 지원금이 사역을 펼치기에 부족하거나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 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현재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에 있다.

YNOT은 2010년부터 기금 수여에 대한 한가지 새로운 방법을 추가했다. 좋은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진행해 오고, 잘 짜여진 조직 및 투명한 재정 보고 등 수혜자격에 고루 잘 갖춘 단체들에게는 3년간 계속해서 지원금을 수여하고자 결정한 것이다.

이 방법은 기금 수령자들에게 두 가지 혜택을 준다. 먼저 단체들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역을 하게 돕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함으로써 귀한 시간과 자원을 신청서 작성에 소비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에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총 20만 달러를 63개 단체에 지급했고, 그 중 9만 6천 달러를 3년 프로그램으로 18개 단체에 수여했다고 YNOT은 밝혔다.

YNOT 관계자는 “나섬영락교회와 저희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수혜 자격을 갖춘 단체들에게 좀 더 나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매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는 여러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과 총 예산을 10만 달러로 책정했고, 이미 약속돼 있는 18개 단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전액을 그 단체들에게 지원하고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주성결 소속 하늘소망교회 창립

미주성결교회(KECA, 총회장 김광렬 목사)의 엘에이지방교회(회장 김희창 목사) 소속으로 있는 하늘소망교회(Heavenly Hope Church)가 창립

식을 4일 오후 3시 30분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예배는 총회장을 지낸 북감찰장 송중복 목사(한빛선교교회)의 사회, 회계 채은호 장로(임마누엘선교교회)의 기도도 진행됐다. 엘에이지방교회 감회장 목사(LA말씀새로움교회,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교회)는 ‘요한복음의 교회-성결교회 스타일’(요 19:32-3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곧 이어 하늘소망교회에 청빙된 김덕수 담임목사에게 지방회장 김희창 목사가 서약 후 치리권을 부여했고, 축하와 권면시간에, 엘에이지방회에서 나온 참립선교비를 지원했다. 또 이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한 임재창 원로목사에게 교단 발전에 공헌한 점을 기려 공로패를 수여했고 김덕수 담임목사에게 창립축하패를 전달했다.

축사는 김대평 목사(바위선교회), 최대영 장로(교단 부총회장), 권면은 최지원 목사(가나안교회)가 했으며, 북감찰교역자부부가 나와 ‘내 평생 가는 길’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박제임스 장로(하늘소망교회)가 인사를 했으며, 교단 총무를 역임한 신원철 목사(제일성결교회 원로)가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담임 김덕수 목사는 한남대 사학과를 나와 2004년에 도미해 달빛신학교에서 석사를 마쳤다. 현재 이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논문 과정에 있다. 주소) 3416 W. First St. LA, CA 90004 문의) 213-427-4380, 714-404-8947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번째 양로병원 봉사자를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 있는 소망을 드리기를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커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현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배부, 벨앨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일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원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황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맞춤양복점 골드핑거 개업 1주년 김병호 사장의 간증



골드핑거 김병호 사장

1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매년 한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날들이었음을 늘 생각하게 된다. 올해로 개업 1주년을 맞은 골드핑거 김병호 사장(미주평안교회 집사) 또한 같은 마음이다.

기도하던 중 부인의 꿈 속에서 지금의 가게를 보고 그 자리에 오픈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성격이 정확하고 치밀해 수선하는

일이든 새로 옷을 짓는 일이든 일을 함에 있어 실수가 거의 없는 그는 1년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심히 일했다. 지금은 몇 벌을 한번에 짓는 단골까지 생겼다.

한국에서 대형 맞춤양복점을 운영하며, 한국아트패션 회장을 맡고, 94년·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받았던 김병호 사장은 IMF 사태로 회사를 잃었다. 실의에 잠긴 그에게 그의 어머니는 미국행을 권유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하시던 아버지까지 변화시킨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란 김 사장은 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으려 했고 그런 어머니의 권유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고 도미행을 결정했다.

미국에 온지 1달 반 만에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직장으로 옮겨 마음을 한 시름 놓았지만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찢어지는 듯한 심장의 통증과 왼쪽팔 전체의 마비증세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지쳐갔다. 그는 건강검진 겸 관광을 위해 모국을 방문한 일정이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성수를 위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찾았다. 그곳에서 우연히 의료선교회 집회를 참석하여 병명을 알게 되고 수술을 통해 생명을 건졌다.

자신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었

던 것은 주일성수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김 사장은 만나는 이들에게 그 둘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사람을 모두 다르게 고유성을 가지고 창조하셨기에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듯이 사람의 체형 또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통 평균적인 사이즈로 제작된 기성복에 내 몸을 맞추어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에 딱 맞는 옷이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을 때 뽀뽀도 드러나는 법이다.

손수 재단에서 재봉까지 해서 다른 이들에게 새 옷을 지어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 두가지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김 사장은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회개하여 흰 옷같은 낡은 죄적인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깨끗케 하심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로워져야 한다. 옷을 지어주는 것은 새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김 사장은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재단을 하고 재봉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김 사장이 지어준 새 옷을 입으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문의) 213-386-5858

한인과
히스패닉 연합

초청 부흥대성회 및 목회자 교회 성장세미나

주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초청강사

연예인 특별간증



홍성욱 목사
(안양제일교회 담임)



이태근 목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송채환 집사
(선인중앙교회 집사)

일시

저녁부흥대성회

2012년 12월 2일 (주) - 3일 (월) 오후 6시30분

교회성장세미나

2012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등록비 20불, 다양한 사역자료 제공, 선착순 한인 150명)

*저녁 집회 후 한인과 히스패닉을 위한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와 봉사 단체를 위한 사랑의 쌀 교환권 배부중)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공동주최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특별협찬 : CBS America, 미주복음방송 외 모든 기독교언론기관(Kcmusa.org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

한인주관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HOLY CITY MOVEMENT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

등록 및 문의처

Tel. 213-384-5232 / Fax. 213-559-7656

어린이들이 뮤지컬로 펼치는 천로역정



리틀드림러의 공연 장면. 어린이들이 펼쳐내는 아름다운 노래와 연기가 또 한번 남가주 한인들을 초청한다.

한인 유일의 어린이 뮤지컬 선교단 '리틀드림러'(단장 한신옥)가 오는 11월 17일 오후 6시 오렌지카운티 라미라다 소재 'La Mirada Theatre for the Performing Art'에서 여덟 번째 정기공연을 선보인다. 무대에 올려질 작품은 'Journey to Joyful Kingdom'이다.

이번에 선보일 뮤지컬 Journey to Joyful Kingdom의 원작은 어른들에게도 벽찬 주제가 담긴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존 번연 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Joyful Kingdom)를 향해가는 어린이들의 여정을 담은 뮤지컬이다. 시나리오를 아동문학가인 한순진 목사가 어린이들에게 맞게 다시 썼다.

리틀드림러의 공연은 비록 어린이

뮤지컬이지만 일반적 교회 공연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다는 평가다. 지난해 공연을 관람했던 한 학부모는 "어린이 뮤지컬을 통해 그 위대한 천로역정을 실감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감동"이었다며 "명실공히 수준급 공연"이라고 평가했다.

한 단장은 이번 공연에 대해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이지만, 스토리 전개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 여러 극단에서 연극을 시도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리틀드림러가 이번에 선보일 무대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구성, 준비됐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과 단원 모두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틀드림러에서는 공개 오디오도 갖는다. 오는 12월 1일과 15일 양일간 정오에 열리며, 장소는 리틀드림러 뮤지컬센터(251 Imperial Hwy. #420 Fullerton, CA 92835)다.

리틀드림러는 다년간 어린이 찬양 안무가로 활약해 온 한신옥 단장에 의해 1999년 창단돼 7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현재 30명의 어린이 단원들을 비롯해 음악, 댄스, 안무, 합창 등 10여명의 감독진이 함께 하고 있다.

▲공연 문의: 714-422-8588
정하나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 성가대합창제 성황

9팀 19곡 합창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성가대합창제가 남가주 지역 합창단, 교회들의 참여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창단 41주년을 맞이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4일 오후 총현선교회에서 남가주성가대합창제를 '감사로 노래하는 자'란 주제로 개최했다.

초교파적으로 열린 합창제에는 랜디김밴드, 포이애마합창단, 남가주사랑의교회, 늘푸른교회, 월서연합감리교회, 주님세운교회, 총현선교회, 이화양상블, 색스폰밴드가 출연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교회음악협회 김미선 회장은 "찬양이 온전히 이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돼 예배할 때 교회의 역사는 바뀌어진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한 마음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로 변화된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능력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9개 팀이 18곡을 합창하고, 마지막 연합합창을 "이 믿은 더욱 굳세라"를 불러 대미를 장식했다.

교회음악협회는 남가주에 속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1971년 설립된 초교파적인 연합기관으로서 지난 40년간 이곳 남가주 교회음악의 질적 향상과 음악 보급을 도모하며 연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토마스 맹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미주크리스찬문인협 제26회 신인등단식



<포토뉴스> 지난 11월 3일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는 신인작품상 시상식 및 제26회 신인등단식을 작가의집에서 열었다.

“바보같은 결정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지혜”

ANC온누리교회, 가을부흥회 개최



ANC온누리교회 가을부흥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있다.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가 2일부터 4일까지 '다르게 삼시다'라는 주제로 가을부흥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흥회 강사는 김용훈 목사(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가 초청됐다.

“바보같이 삼시다”란 제목으로 4일 주일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솔로몬 왕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얻었어도 결국 그의 고백은 ‘헛되다’였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같이 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내 경험에도 내가 바보같은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공대를 나와 신학교를 간 것,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지만 미국에 남았던 것 등의 경험이, 세상은 바보같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며 “바보스럽게 사는 몇가지 원리를 보면 먼저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견디지 못하는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아닌 가슴과 경험으로 느끼도록 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이 원칙에 익숙한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곧 축복이다”라며 “삶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예배 스크린에 찬양 가사 사용해도 벌금 폭탄... 저작권 논란



예배 중 스크린에 찬양의 가사를 투사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국교회의 저작권을 말하다

사례1. 서울 정릉동의 A교회는 예배 영상이나 주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최근 '글자체'(font) 관련 소프트웨어를 약 2천만원 들여 구입했다. 처음부터 의도했던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해당 글자체를 '그냥' 써왔다. 돈을 내고 써야 한다는 걸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글자체 개발 업체가 교회측에 그 대가를 요구해 갑작스레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사례2. 서울 서초동의 B교회도 얼마 전 '저작권 홍역'을 치렀다. 예배 등에서 사용했던 찬양(CCM, 워십송 등 찬송가를 제외한 기독교 음악을 통칭-편집자 주)이 문제였다. 이 교회 역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결국 저작권 관계자의 문제제기로 이 교회는 1천만 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교회 특성 이용, 계획적 접근도

한국교회에서 저작권(copyright)이라는 단어는 그리 익숙지 않다. 값 없이 주고받는 게 익숙한 세계에서 소유권,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생소하기만 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저작권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는 게 이 분야에 해박한 목회자들을 비롯한 저작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문제라

는 얘기다.

한 저작권 전문가는 "최근 들어 글자체 개발 업체가 교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며 "이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글자체를 예배 영상이나 주보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특정 교회에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은 교회들은 '울며 겨사 먹기'식으로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글자체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례1의 A교회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일이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전조가 아닐까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전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대응, 걸음마 단계

그러나 한국교회의 저작권 인식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1950년대 이미 저작권법을 마련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온 국내 저작권 환경에 비춰보면, 교회는 그야말로 저작권 '무풍지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교계에서 저작권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저작권만을 다루는 로펌이 생겨날 만큼 국내 저작권 문제는 이미 이슈가 되고 있다. 교회가 이런 로펌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을 것"고 말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몇 개의 저작권 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국내 목회자들로 구성된 KCCA를 비롯해 얼마 전 한국지부를 창설한 국제 저작권 단체 CCLI, 찬양 사역자들과 크리스천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KGMCA,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이 주축을 이룬 KCMCA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근래 조직을 갖춘 곳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들 단체들은 저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교회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저작권에 있어 비전문가인 교회를 대신해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교회에 보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동시에 저작

권자들의 입장도 대변해, 교계에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문제는 창구의 '단일화'다. 저작권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그들과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각 단체가 보유한 저작권이 상이할 경우 특정 단체와만 계약한 교회가 자칫 다른 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될 수 있다.

교회의 인식 변화 급선무

우선은 교회가 저작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상대적 약자일 수 있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견해도 있다. 많은 교회들이 "찬양에도 돈이 든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찬양 사역자들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 찬양 사역자는 "교회가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단순히 비용의 지불이 아닌 하나의 섬김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며 "물론 사역자들은 돈이 아닌 사명감에 일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그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그것이 저작물 사용자의 책임이자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문재인 후보, 한기총·NCKK 방문

사회 통합에 종교계 역할 커, WEA 총회 적극 지원



문재인 민주당당 대통령 후보와 흥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당 대통령 후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흥재철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 김영주 목사) 등 기독교계를 예방, 협력을 요청했다.

문 후보는 5일 오후 NCKK와 한기총을 연이어 방문했다. 특히 한기총 흥재철 대표회장과 소속 교단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후보는 "사회 통합과 화해에 종교계의 역할이 크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내후년 열릴 WEA 총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며 "민주화와 인권, 남북관계, 복지 등 다방면에서 쇠신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아마 정직성과 청렴성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한 때 공직에서 원칙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런 점에서는 자부할 수 있다. 제가 지향하는 정부 역시 깨끗하고 겸손한 정부인데, 기독교적 가치관과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천주교인이라고 밝힌 문 후보는 "크게 보면 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YMCA 활동도 했고, 인생은 물론 정치적 활동 역시 기독교와 인연이 깊다. 대통령이 된다면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면에서 종교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방문에 앞서 NCKK를 찾은 문 후보는 김영주 총무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지금은 후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NCKK를 비롯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진영이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한기총 흥재철 대표회장은 문 후보에게 종교사학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고, 무엇보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과는 손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NCKK 김영주 총무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영 기자

통합도 세습방지법 내년 총회 현의

총대들, 담임목사 대물림 방지법에 동의

예장통합 평양노회는 지난달 23일 부산 효성교회(담임 김동근 목사)에서 열린 제177회기 정기 가을노회에서 '담임목사 대물림 방지법(세습방지법)'을 차기 총회에 현의하기로 결의했다.

교단 산하 노회들 중 가장 규모가 큰 평양노회에서는 지난 노회에서 한 총대가 이같은 내용의 현의안을 건의

했으며, 총대들 대부분이 찬성해 차기 총회에 현의하기로 결의했다.

평양노회는 6일 첫 임원회를 열어 대물림 방지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김동근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대웅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트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i.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구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지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구동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찬양예배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의 빛이 세상을 밝히리라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진우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4 Crocker St.)
1부거리에배 오전 7:00
2부선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김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25 (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구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 (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찬양예배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전길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지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순익의 10% 사회 기부...

오픈뱅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믿음의 기업될 것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는 여자가 있다. 환칠한 키에 단아한 외모, 위풍당당한 카리스마, 거기가 믿음까지 좋으니...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 가수 최초의 여성 행장 꼬리표가 붙어, 어딜 가나 '톡톡 튀는' 커리어우먼, 오픈뱅크 민 김(한국명 김민) 행장을 만났다. 지난 1일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오픈뱅크 본점 집무실에서다.

김 행장은 1982년 USC에서 재정학을 전공한 뒤 월셔은행에서 3년, 한미은행에서 10년, 나라은행에서 15년간 근무했고, 오픈뱅크 행장에 취임한 지 이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이 업계에서만 30년 일해 온 베테랑이다. 나라은행 재직 당시 전무를 거쳐 행장이 되기까지 남성 중심의 업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즐거이는 자세'를 첫째로 꼽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자만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 낼 수 있다는 것.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최대한 즐기라"고. 또 하나는 '목표를 갖고 일하는 자세'.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이기도 한 이 법칙을 그는 몸소 실천해 왔다. 그래서 일가, 또랑또랑하면서 더 맑은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솔한 벽을 뚫고 오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 "뒤편 항상 첫번째 주자가 힘들잖아요. 업계에 팽배해 있는 여성 행장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서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실적과 성과 등 실력을 인정받기까지 남들의 2-3배는 더 노력했죠. 들여다 보면 제가 함께 아니라 결국 하나

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분께서 저를 여기까지 훈련시켜 오신 거죠."

그녀는 최홍주 목사가 시무하는 에브리데이교회 출석교인이다. 기업 운영에 있어 기독교 정신을 발휘함은 물론이다. 기업의 수장으로서 그는 경영진 및 주주들과 함께 오픈뱅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꿈을 꾸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비영리재단 '오픈 스텝 어드십 재단'을 본격 발족하고 매년 세금납부 전 순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발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윤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청지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실제로 지난해 말 48개 한인 및 주류 비영리 봉사단체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15만불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7월 주주 총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법인 정관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켜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된다. 올 연말까지 각 기독교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영리재단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오픈뱅크는 2005년 창립 이후 지난해 6년만에 처음 순익을 기록했다. 그간 평균 4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다 흑자 경영으로 돌아선 것. "누가 봐도 거의 망해가다시피 한 은행을 살리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주주들도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사실 말이 그렇지 기업 차원에서 십일조를 드린다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가능한 일임을 오픈뱅크의 사례를 통해 보게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고 싶다"면서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김 행장. 그녀의 말대로 기업 윤리의 새

뉴욕 한인교회들, 샌디 피해 점차 회복

전기공급 중단으로 아직 촛불예배 드리는 곳 많아

지난달 29일 새벽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교회들이 전기가 끊기는 등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피해 복구가 점차 이뤄지면서 한인교회들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현재 이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시설의 피해를 입은 교회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풍에 의해 교회 간판 및 조명 등에 피해를 입은 사례들은 보고됐으나 건물 자체의 큰 피해가 없다는 소식은 아직 뉴욕교회에 전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전기와 물 공급의 중단이었다. 이에 전기가 끊어진 많은 한인교회들은 쌀쌀한 날씨 가운데 촛불예배를 드려야 했다. 또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서 인터넷 사용도 불가능해져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재 베이사이드 지역은 1일 전기시설이 복구됨에 따라 이 지역의 교회들은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플러싱과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교회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기 시설에 대한 복구가 속속 이뤄짐에 따라 점차 예전 모습을 찾아가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자택의 전기와 물의 공급이 끊어져 가까운 지인의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어 통화 불량 지역이 늘어난 것도 성도들과의 통화가 잦은 이민 목회자들이 겪는 큰 불편 중 하나다. 또 전기 시설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주유소들이 많아 교회 밴 운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부분 시설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대원 기자

뉴욕목사회 부회장 선거 3파전

김영환, 노인수, 황동익 목사 부회장에 출마



(왼쪽부터) 회장 후보 최예식 목사와 부회장 후보 김영환 목사, 노인수 목사, 황동익 목사

대뉴욕한인목사회 차기 임원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현택 목사)가 지난 1일과 4일 2차례 서류심사를 거친 결과 등록한 후보자 모두 통과를 결정했다. 이에 뉴욕한인목사회 제41회기 임원후보는 회장에 최예식 목사(북면교회)가 단독 임원후보자로서 가운데 부회장 후보로 김영환 목사(효성교회), 노인수 목사(불기동교회), 황동익 목사(뉴비전교회) 3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해 모든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 통과를 확정지었다. 신현택 위원장은 "2차례 모여 면밀히 검토했고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 모두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2차 서류심사가 선관위의 마지막 심사"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정오 언론 감담회를 열고 후보자 서류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번 회기 선거진행에 관해 브리핑했다.

뉴욕목사회 41회기 정기총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김대원 기자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하나님의 청지기 기업

“지역사회 내
봉사단체
지원이 목적”

연간 순익의
10% 사회 환원
‘청지기 프로그램’



민 김 행장

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착한 은행’,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서는 오픈뱅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청지기 프로그램이란?

오픈뱅크가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재단 오픈 스투어십 재단이 운영하는 ‘청지기 프로그램’은, 인종에 상관없이 은행 인근의 지역 사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믿음 프로그램’ 선정 단체에 최대 1만 달러

까지, ‘소망 프로그램’ 선정 단체에는 3000 달러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지기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www.myopenbank.com)를 통해 알 수 있다.

정하나 기자

세대간 · 인종간 연합 도모한 매치스트라이크

1천여 청년 참여, 목회자 위해 합심 기도도



매치스트라이크에 참석한 목회자, 청년, 타민족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되었다.

매릴랜드한인청년부흥대축제 ‘2012 매치스트라이크’가 3일 토요일 매릴랜드 컬럼비아에 소재한 다민족교회인 브릿지웨이교회에서 개최됐다. ‘열방의 빛(Light to the Nations)’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기존 한인 중심 청년 집회에서 다민족으로 사역의 영역을 넓히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이날에는 1천여 한인 청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집회는 워십 댄스, 찬양, 헌금, 드라마, 말씀, 기도,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각 순서에 앞서 준비 기간의 모습을 담은 영상시 상영돼, 집회를 위해 3개월의 기간을 드렸던 청년들의 헌신을 목도하게 했다. 이태우 청년회장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 조그만 감동이 전해져,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책임자였던 송창수 전도사는 “집회가 끝나고 ‘참 좋은 집회였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청년들은 30여 분 간의 뜨거운 찬양, 그리고 워십 댄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쏟아냈다. 특히, 브릿지웨이교회 ‘BCC 드라마 팀’에서 준비한 드라마는 다민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해와 선입견을 둘러싼 백인, 흑인, 동양인, 혼혈인의 입장을 그리면서, 서로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서로의 다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교훈을 담았다.

강사 데이빗 앤더슨 목사(브릿지웨이교회 담임)는 “우리가 입을 열어 주를 증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증거가 돼야 한다”면서, “크리스천의 선한 일과 선한 증거가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앤더슨 목사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계에 맛이 더

해지고, 보존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진리, 진리, 진리를 외치는 데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 관계에서는 승리하지 못한다”면서 “무엇이 당신의 빛을 어렵게 하는가? 먼저는 분열이다. 사람간, 교회간, 리더간, 인종간, 배우자와의 불화와 분열이다”라고 말했다.

앤더슨 목사는 “우리는 각 민족마다 존재하는 프라이드(Pride)를 깨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장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아제의 하나님이나 또 오늘의, 내일의 동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1.5세, 2세, 3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했다.

설교 후 앤더슨 목사는 청년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빛의 삶을 살기 원하는 청년들은 일어나라. 기도해 주겠다”는 말에 4분의 3에 이르는 청년들이 일어나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다.

이후 청년들은 매릴랜드 지역 한인교회, 미국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 송창수 전도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차가움과 분리됨을 보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다”며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를 인도했다. 또 참석한 한인 목회자 20명과 미국 목회자를 강단 앞으로 불러내, 송 전도사는 “우리는 목사님들을 격려해 주기보다, 불평하고 상처를 내는 데 더 익숙했다”며 영적 리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그들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상달돼, 교회를 연합하는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랐다.

권나라 기자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성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8:00(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 (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길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성교와 구제의 삶으로 상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기도회 오전 5:45 (화-금) / 6:00 (토)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영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8.8.31 나눔을 이끄는
살신자, 생애희사자를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흥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성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r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정오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승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랑,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게 하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안전한 인터넷 쇼핑몰 www.KBSmall.com

가을 햇 산삼

추수감사 특별 보은 감사세일

항상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수 감사 특별 보은 감사 세일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3차 파괴 가격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1,700	\$1,200/LB
		2호:15-22그램	\$1,200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1,100	\$900/LB
		4호:5-8그램	\$ 900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 600	\$4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1월 5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중전무게
\$600	270그램	약 30 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200그램	약 20~30 뿌리	평균 20-30년근	70그램

\$200 산삼은 200그램부터 130그램, 110그램, 90그램 등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선물 증정



\$ 30

산삼 200불 구입시마다 /2병
구연산 \$80(소매가 기준)
 산삼 600불 구입시마다/8병
구연산 \$280(소매가 기준)



\$ 50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HQ

山蔘



강력한
면역력
자연치유력

타 업체보다
2-3배 싼
가격

산삼의 **가격 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70그램~~ **130그램** / 평균 10-30년근 30~40뿌리



\$200

소매가
~~\$1,000~~

~~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20~30뿌리



\$600

소매가
~~\$3,000~~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월-금: 10am-7pm, 토:10am-5pm

BOOK

신간추천



通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거침없이, 주를 향해

팀 티보, 나단 휘태커/유정희 | 시공사 | 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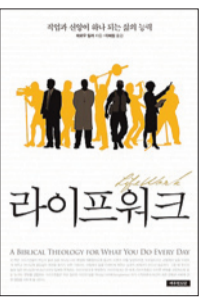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여기, 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증명해 내는 한 청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팀 티보(Tim Tebow). 미국 프로풋볼리 그 NFL 최고의 선수인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세리모니를 올려드렸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라이프 워크

대로우 밀러 | 예수전도단 | 540쪽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직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 바로 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예수전도단과 국제기아대책기구 등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 온 저자는 성경을 기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진짜 이유에 대해 깨닫게 한다.



사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양소영, 양희욱 | 카리스 | 302쪽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성경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쿨하게 조언하는 연애사용설명서. 이 책은 10년 넘게 청년대학부 코치와 심리상담사로 활동해 온 두 저자가 사랑과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상담했던 사례와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을 담아냈다.



기다림은 길을 엮는다

강준민 | 토기장이 | 350쪽

책에서 저자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본성이기에 크리스천은 누구나 기다림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기다림은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제2의 천성이고, 그 유익이 크기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성품이라고 강조한다. 저자의 깊은 목상이 담긴 책이라서 우리를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도록 도울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2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는 두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과 조용기에 대한 서적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조용기(쿠팡)>가 출간됐다.

국민일보 이승한 종교국장 저술한 이 책은 20세기 복음주의 운동과 오순절 운동의 흐름을 짚어보고, 각각을 대표하는 두 목회자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메시지에 나타난 특징과 함께 세계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까지 기술하고 있다.

책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조용기>는 많은 독서량과 호감이 가는 품성, 라디오나 TV 등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전도, 공산권 선교,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펼쳤던 대규모 전도집회 등을 두 거장의 공통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조용기>

이를 통해 저자는 두 목회자의 부흥 운동이 전세계 부흥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

고,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와 시대를 반영한 설교, 구원의 현재성 부각과 종말론적 영성 등으로 이를 표현해냈다.

차이점도 있었다. 그레이엄 목사는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해 비교적 순탄한 목회자의 길을 걸었지만, 조용기 목사는 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가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고 천막교회부터 세계 최대의 교회까지 이뤄냈던 것이다.

저자는 가까이서 지켜왔던 조 목사의 신학여정을 상대적으로 더 자세히 소개한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1950년대 희망의 신학에서 궁정의 신학, 창조의 신학을 거쳐 지금 '사랑과 행복 나눔'의 신학까지 두루 설명돼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지난 9월 서울신학대학교 초청 제1기 영성강좌 강연을



지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여의도대성회 때 함께한 두 목회자. ©출판사 제공

그대로 실으면서, 그의 54년 목회 사역 핵심인 오증복음(중생·성령·신유·축복·재림)과 삼중축복(영적·물질적·육체적 축복), 4차원의 영성(생각·꿈·말·믿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에도 두 분의 열정적 선교사역과 헌신을 본받아 위대한 복음전도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2,490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타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 (마감) / 3월 11일 (신청가능) / 4월 1일 (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 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교회에서 단체로 신청하시면 단체 특별 할인됩니다
성지연구소에서 제공한 성지순례 지도 & 자료집을 드립니다

에벤에셀 신학교를 찾아서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정취하며, 미래의 사역을 상의하기 위하여 1989년 파송 이래 훌륭하게 사역을 계속하는 안명수 선교사님

부부를 최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30여 인디언 교회와 미래 목회자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벤에셀 신학교를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삼고 과테말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에벤에셀 신학교의 역사는 미국에서 파송된 성경번역선교사의 성경학교로 시작됩니다. 7000피트가 넘는 산 마태오 지역에 있는 마야 인디언을 위한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1989년 안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 근처의 꼬야팡에 들어와 마야 인디언을 돌아보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교사님은 신학교가 전략적인 사역지가 되리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성경학원이 15년 전부터 안 선교사님에 의하여 본격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지역의 언어는 추방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지역 교회의 지도자는 원주민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비하면서 3층 건물을 갖추고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 컴퓨터실을 구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신학교로 지금 거듭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순회사역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신학교를 통한 후진양성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에벤에셀 신학교를 찾는 것은 감개무량한 일이었

니다. 10월 29일 월요일 아침 과테말라 시티에 도착한 저는 공항에서 안명수 선교사님과 인랜드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신 주형빈 의료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동 준비를 한 후 만나질을 지나서 깨알떼당고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지 아니한 안 선교사님을 우에우에떼당고의 숙소에서 쉬게 하고, 우리 부부, 안상희 사모님, 그리고 주 선교사님 등 4명은 약 6시간을 달려 30일 오후 2시에 신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산 마태오 지역의 구름과 맞닿은 고산지대의 감추어진 절경을 바라보며 신학교에

다다랐습니다. 선교사님의 설계와 수고로 지어진 신학교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더욱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지역 주민들의 운명이 변하고 마야 인디언에게 구원의 풍성한 역군이 배출되는 귀중한 신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 본관 맞은편에 마련된 진료실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한방사역이 펼쳐집니다. 영혼의 의사 안명수 선교사님 부부와 육체의 의사 주형빈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이 천국의 임재를 위하여 건강하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 목회와 이메일 시대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랄게 편리한 통신수단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이메일을 받을 수 있어서 세계 어디를 가도 손에서 이메일을 열 수 있습니다. 지난번 몽골에서 선교현장을 달리고 있을 때에도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틈틈이 이메일을 열고 일반인의 교회 소식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담임목사의 목회통신과 교회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 읽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게 되었고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메일 뵈입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의 문자 텍스트, 더 나아가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사용하면 즉시 문자로 소통이 되는 시대입니다.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악용하고 죄의 기구로 쓰는 이 땅의 수많은 악의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빛과 소금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현대교회들과 성도들은 거꾸로 인터넷과 이메일, 스마트폰 등이 복음전달의 도구로, 또는 성도들의 대화의 장으로 쓰이도록 역전시켜야 할 사명이 분명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가져 오지 않고 스마트폰을 열어 성경을 찾아 읽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배 중 열고 있으면 성경뿐 아니라 이메일, 카카오톡에 자연히 손대게 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등의 여러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메일 시대는 우리 앞에 펼쳐졌고 현대교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끌어 안으며 복음전달의 도구들을 이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할 때만 해도 컴퓨터 시대라고 부르기에에는 이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년이 넘는 동안에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많은 SNS 통신들이 발달했는데 아마도 그중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하는 통신수단은 이메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이메일은 엄청나게 쓰이는 것이지만 담임목사인 제 판단으로는 이메일만큼 현대교회의 목회에 요긴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전에는 성도들에게 알릴 소식들이 있으면 전통적인 편지 형식으로 우표를 붙여 발송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우표 값은 나날이 올라가고 교인들 숫자 또한 크게 불어나서 한 달에 한두 번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 금액이 상당하여 그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은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시간이 안 걸립니다. 성도들이 동원되어 수천 장의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으로 가져가는 일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보내면 아침에 들어가고 밤중이라도 보내면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받아 읽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바야흐로 감사의 계절이다. 누군가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하늘을 보며 감사: 저 높고 높은 곳에 떠 있는 태양은 시도 때도 없이 빛과 열과 영양분을 지구로 보내주어 모든 만물이 생존할 수 있게 해 주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늘에는 구름들이 바람을 타고 동실동실 춤을 추며 우리가 필요한 물을 실어다 주지 않는가! 하늘에 수 없이 날아 다니는 현대문명의 상징인 비행기는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그것을 타고 식사 몇 번 하고 영화 몇 편 보면 고향인 인천공항에 나를 내려다 준다. 밤에는 은은한 달이 상처투성이인 나에게 찾아와 힘내라고 격려해 주고 무수한 별들은 길잡이가 되며 특히 새벽별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주위를 보며 감사: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피를 나는 부모형제, 자매가 있고 한 몸이 된 부부가 있고 천하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있으며 떨어져서 못 사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다. 더우기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며 그곳에서 동료들과 같이 즐거움과 어려움

감사합니다

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맛과 멋을 더해 준다.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땅을 보며 감사: 봄에는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다. 여름에 싱싱하게 자라서 가을에는 고생한 보람이 있어 알곡과 과일을 거둬들인다.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사방에 피어 벌과 나비를 불러 들인다. 어찌 자연의 혜택 뿐이라! 100여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마치 요술쟁이가 방망이를 내리치면 원했던 것이 눈 앞에 나타나듯 오늘날 모든 것을 소유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100살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만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의 어느 섬 마을에 사는 모녀가 TV에 소개됐다. 초라한 집에 차가 하나도 없어 음식을 갈아서 마셔야 하는 할머니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낮에는 바닷가에서 모녀가 조개를 캐고 앞에 있는 밭에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간다. 그런데 저녁에는 신나는 잔치가 벌어진다. 딸은 기타를 치며 어머니와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모녀가 오직 사랑으

로 하나되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기쁘게 사는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크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현대문명의 혜택을 한없이 받으며 살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생각나는 작품이 전원교향곡이다. 주인공인 목사는 길가에 버려진 고아 소경을 집에 데려다 정성껏 교육을 시킨다. 어느 날 그 애를 데리고 뒷동산으로 올라가 잔디 밭에 앉아서 "우리가 앉은 곳은 담요를 깔 것 같이 부드럽고 주위에는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들이 조화롭게 피어 있고 건너편에는 많은 양들이 목에 찬 방울을 울리며 지나가고 우리 뒤에는 고목이 많은 가지를 늘어뜨렸고 그 위에는 많은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단다"라 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소녀가 "목사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군요"하자 목사는 "그럼, 아름답지. 그러나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모른다"라고 답한다.

우주의 신비,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 땅 위의 만가지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그 외에도 현대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만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일보

편집국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흔들리지 않는 기준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오래 전에 뉴저지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을 향해 출발한 적이 있었다. 더운 날씨 탓에 타자마자 차 안은 그야말로 한증막 같았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로컬 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하나 느끼게 되었다. 평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창문을 닫고 운전했기에 몰랐는데, 창문을 열고 달리니까 시속 70마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속도 때문에 차 안에 있었던 나는 무서운 느낌과 함께 아찔한 스릴을 느꼈다. '아!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타는구나...'

공황에 도착한 후 한 시간 쯤 지났을 때 내가 탄 비행기는 맑은 날씨와 함께 노련한 조종사 덕분에 아주 순적하게 뉴저지를 향해 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방금 공항에 오기 전까지는 시속 70마일의 속도도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속 500마일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빠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냥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

마다 이 감각의 기준이 달라서 같은 온도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춥다 하고 어떤 사람은 덥다 한다.

어떤 이는 교회에 10분 거리를 오면서도 멀다고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1시간의 거리를 오면서도 교회가 가깝다고 느끼는 이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에 기초를 둔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할 때, 내가 좋으면 인가를 판단하려 할 때,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때에 자신의 느낌과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

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이 특성이 얼마나 위험하다면, 이 기준으로 한다면,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어지게 된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와 낙태이다. '내가 좋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무서운 자기편의와 이기주의가 그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과 주관대로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느낌과 주관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간이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이 무엇이며 인간이 바로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뭘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법으로도 강압할 수 없고 물리적인 제재도 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곧 법을 바꾸고 더 큰 힘과 강압을 동원하여 자신의 느낌과 주관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밖에 없다. 바로 말씀이다.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말씀은 인간의 마음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인간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참 기준을 찾지 못해 저마다 느낌과 주관대로 살아 가며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시골인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최근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알파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건물 넓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모두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옛날 저의 장인 어른께서 이웃들과는 늘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던 관용어가 있었는데, "이웃과는 황소 한 마리를 놓고도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차라리 황소 한 마리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과는 절대로 다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수양관 주변에 드문드문 주택들이 떨어져 있는데 바로 길 건너에 한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양관을 구입하기 전에 이웃을 먼저 찾아 갔습니다. 알고 보니 70년대 초에 춘천에서 군인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내외는 맛있는 과일을 종종 사서 보내면서 그 분 가정과 좋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수양관에는 상주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맙게도

빅토빌에 계시는 박상훈 목사님께서 매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이웃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수양관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저의 걱정을 덜어 주는 친절한 전화였습니다.

어제는 알파 주말수양회를 위해 수양관에서 몇 시간동안 머물렀습니다. 마침 수양관 주변에 펼쳐놓기 위해 주문한 자갈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알파를 돕기 위해 오신 몇몇 남자 성도님들이 그 자갈들을 펼치는데 언제 끝날지 가능할 수가 없

었습니다.

그 때 울타리 너머로 이웃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 집에 백호(backhoe)가 있는데 가져다 쓰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삽으로 퍼서 자갈을 나르는 모습이 딱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좋다고 했더니 정말로 '백호'를 끌고 왔습니다. 나더러 운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중기계를 다루어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손수 2시간 동안이나 그 일을 대신 해 주었습니다. 그 장비로 자갈을 퍼다 옮겨주니 한 번에 30명 몫의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이 다 끝난 후에 "이 기계는 너희 것이니 아무 때나 갔다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모처럼 옛 시골인심을 본 듯해서 행복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나누어 쓰면서 살았으니까요.

점심으로 나온 돼지불고기와 백반을 그가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2월 첫 토요일 점심 때에 우리가 불고기 파티를 할테니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다 모이게 해 달라고. 그는 저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바게트 빵과 새벽기도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프랑스 전역에서 1년이면 약 20억 개의 샌드위치가 판매되는데 그중에 바게트 빵으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가 65%라고 할 정도로 바게트 빵은 프랑스인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빵이라고 한다. 맥도날드는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빵으로 프랑스인들과 개선문을 방문하는 수많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는 것 같았다.

'바게트 빵'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빵집 이름 '파리 바게트'로 인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바게트는 프랑스어로 막대기 혹은 지팡이란 뜻이다. 이 빵은 구울 때 위에다 스틱으로 물을 뿌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 빵 겉이 딱딱하다. 바게트 빵이 어떻게 프랑스의 대표적 빵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프랑스에서는 18세기까지 국민 안에 신분제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들은 각 신분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했다. 그러던 중 18세기 말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고 1793년 가을 국민회의에서 '빵의 평등권(The Bread of Equality)'을 선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빵먹을 권리를 놓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부자만을 위해 밀가루를 사용한 빵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시민 모두를 위해 질 좋은 빵을 생산해야 한다." "빵의 길이는 80센티미터, 무게는 300그램으로 한다." "바게트는 물, 밀가루, 소금, 이스트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버터와 같은 다른 재료를 넣으면 바게트라 불릴 수 없다."

이렇게 바게트 빵은 프랑스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을 위해서 굽는 방법이 결정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 회의차 파리에 갔다가 잠깐 짬을 내어 지하철을 타고 파리의 명물 개선문을 방문했다. 저녁식사 시간인지라 개선문의 위용을 뒤로 하고 상제리제 거리로 내려가며 식당들을 쳐다 보았다. 여러 프랑스 식당들 속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역시 맥도날드였다. 맥도날드에 들어가 관광객들 사이에 줄을 서서 메뉴를 보니 낮은 메뉴 속에 신선한 이름 '맥 바게트'가 눈길을 끌었다. '맥도날드에 바게트 빵이라?'

필자는 지난 1월말 복음적인 장로교 지도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2천명 이상 모인 올랜도 모임에서 설교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떤 내용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백인들에게 한국인의 영성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주제가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가?'였다. 새벽에 LA로 향하는 프리웨이에는 6시가 조금 넘으면 정체가 생길 정도로 일찍부터 일하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새벽에 교회에 모여 새벽기도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기가 어렵다. 새벽기도회가 말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매우 한국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길 좋아해서 새벽기도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1백여 년 전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어서 힘으로나 정치력으로 극복할 다른 길이 없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 또한 육이오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들게 되었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도와 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인들은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계급타파'를 이루는 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바게트 빵을 만들었고 이 빵을 온 국민이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에까지 알려지는 빵이 되었다. 한편, 우리의 새벽기도도 한국인 전체의 사랑을 받고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때를 극복하며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바게트가 눈길을 끌었다. '맥도날드에 바게트 빵이라?'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 남가주 연목회

추수감사예배 및 찬양축제

미국 초창기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한인사회에서 추수감사예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 ▶ 일 시 : 2012년 11월 18일 (주일) 오후 6시
- ▶ 장 소 :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사무) 213)487-3920
2525 James M. Wood Bl. L.A. CA 90006
- ▶ 강 사 : 한종수 목사 (얼바인한인침례교회)

● 문 의 : 정요한 (213)422-9191

주 관 :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서문준

주 최 : 남가주 연세동문회학회 회장 정요한 목사



HEALTH & LIFE



체내에 쌓인 각종 독을 해독시켜 주는 7가지 식품

다독스 식품으로 몸속을 정화시켜라!

체내 장기에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음식이다. 또한 이 장기의 독소를 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음식이다. 우리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생성하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다.

반면 몸에 좋은 음식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우 맛이 없을 뿐더러, 그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의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의 장기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 속을 정화시키기에 좋은 다독스 식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자.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지방은 비타민 A, D, E, K 등 지용성 비타민을 운반해 준다. 특히 돼지고기의 지방 중 불포화지방산은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중화시키고, 축적된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철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빈혈 예방 효과가 있다.

현미

현미는 껍질질만을 벗긴 쌀로 씨눈과 곡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피틴산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으며, 농약의 독과 화학비료의 독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특히 해독작용이 뛰어난 현미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인체에 축적되기 쉬운 수은 등 중금속을 배설시키는 작용이 탁월하다. 또한 대변량을 증가시키고 대변의 장내 통과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된장

전통 된장은 발효식품 가운데 항암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된장을 매일 먹으면 특히 간 건강에 좋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의 해독 작용도 돕는다.

체내에 섭취된 영양소는 대부분 간을 통해 분배되는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또한 된장에는 유독가스를 해독하고 농약 성분은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일터에서 아황산가스나 이산화탄소를 마시며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다.

다시마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 성분은 유해물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인체 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대장 활동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밖에도 중금속 및 방사선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카드뮴·납 등의 체내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파래

대장의 연동운동을 돕는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니코틴을 해독해 주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한다. 파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는 폐점막을 재생해 주고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결핵이나 폐암 환자의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미역

대표적인 다독스 식품으로 꼽히는 미역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

아 대변의 양을 늘려준다. 또한 대변과 함께 장내 유해균을 배출해 주는 효능도 있다.

또한 미역은 수은,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의 독을 배출해 주는데, 이때 불필요한 염분과 불순물도 같이 몸 밖으로 몰아낸다.

미역의 사촌인 다시마에는 양질의 알긴산이 함유되어 있어 음식물이 장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 변비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역국을 끓여 먹는 건 어떨까.

콩

콩은 몸 안에 쌓여있는 공해물질을 녹일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도 한다. 다른 식품에 비해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다. 프라이팬에 볶아 씹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루를 내서 먹는 것도 방법이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정도로 그 영양가가 뛰어나다.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약효 작용이 뛰어나 한방에서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검정콩은 여러 가지 체내에

쌓인 독을 없애주고, 신장계통의 대사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신장계통이 약한 사람은 몸이 냉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몸에 여분의 수분이나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 경우 검은콩을 섭취하면 신장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수분과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몸으로 체질이 개선된다.

이밖에도 검정콩은 당뇨병이나 귀울림, 백발 등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콩 고를 때 주의해야 할 Tip

콩을 선택할 때는 용도에 알맞은 콩을 고르되 신선하면서도 맛 좋은 콩을 고르는 것이 관건이다. 주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몇 시간 콩을 삶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르지 않고 딱딱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을 터. 오래된 콩은 조리할 때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콩을 고르는 게 좋다. 이에 더해 알이 단단하며 고른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 종류에 따라 형태가 올바른 형태와 색깔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벌레 먹은 걸 피한다. 봉지에 든 콩은 가루가 나지 살펴본다. 가루가 있으면 오래된 콩이고 부서진 콩이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쉽게 만들어 두고두고 꺼내먹는 콩자반, 밀반찬의 종결자



LA 한인타운에 사는 초보주부, 조이스 황(35) 씨. 바쁜 직장 생활로 시각을 다루는 워킹맘인 그녀에게 밀반찬은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비단 박 씨만의 고민은 아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다른 입맛과 취향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반찬 걱정이 마를 날이 없다. 정작 마트에 가면 풍부한 식자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장보기가 걱정되는 건 매한가지다.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매일 요리하기는 귀찮은 당신에게 모처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실속있는 메뉴를 하나 추천하겠다. 바로 몸에 좋은 검정콩으로 만든 콩자반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웰빙 트렌드로 인해 어딜가나 자주 등장하는 검정콩. 최근엔 검정콩의 기능성이 부각

돼 검정콩 두부는 물론 검정콩 간장 및 검정콩 된장까지 출시되면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 검정콩의 인기는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약학서(본초강목)에 보면, 옛 우리 선조들도 검정콩을 약콩으로 자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종피에 함유된 특유의 색소로 시각적 식미감을 증대시켜 밥밑콩, 감정, 떡소용 등으로 이용해 왔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의 대표 밀반찬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콩자반도 선조들의 식탁에 단골 메뉴로 등장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콩자반은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요리연구가 미셸 조 씨가 소개하는 레시피다.

맛있는 재료

- 검정콩 1/2파운드
- 조림장 재료
- 간장 1/4컵, 국간장 1큰술, 물엿 1/3컵, 흑설탕 2큰술, 물(육수) 2컵, 참기름 약간, 통깨 약간

만들기

1. 준비한 콩은 잠티나 이물질을 모두 골라내고 깨끗이 씻는다.
2. 손질한 콩은 콩의 4배 정도의 물을 붓고 5시간 이상 불린다.
3. 냄비에 불린 검정콩과 불린 물을 넣고 센불에 삶아 주는데,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콩이 익을 때까지 삶는다.
4.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거품을 걷어내고 5분 정도 더 끓인다.

5. 분량의 간장, 국간장, 흑설탕을 넣고 국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조리한다.

6. 국물이 자작하게 되었다 싶으면 물엿을 넣고 센불에 졸여 완성한후 통깨를 뿌려 낸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밀반찬 하나를 똑딱 만들 수 있다. 짜지도 단단하지도 않게, 고소한 식감을 살리는 게 포인트다. 벌써부터 고소한 콩자반을 씹으며 좋아하는 남편과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는가. 그래, 오늘 저녁은 구수한 된장찌개와 함께 자르르 윤이 나는 검정콩으로 만든 콩자반으로 식탁을 다스리자. 고슬고슬 잘 지어진 밥에 비벼 먹으면 이내 밥 한 그릇 똑딱이다.

▷ 미셸의 쿠킹 클래스 문의: 562-896-309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 Fax. (213) 402-5136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일보를 기대해주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AR & LIFE

타이어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자전거, 모터사이클과 자동차의 타이어 단면이 다른 이유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타이어의 단면을 살펴보면 아래쪽이 반원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아래쪽이 거의 평면에 가깝다. 타이어가 하는 역할이나 소재, 구조 등은 비슷하면서도 형태에 있어 이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퀴의 수와 구조 때문이다.

자전거 모터사이클은 두 개의 바퀴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앞바퀴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몸을 이용해 차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때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도 각도를 이루며 기울어지게 되는데, 똑바로 서 있을 때와 같은 접지력을 유지해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즉, 차체의 기울어짐에 상관없이 고른 접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둥근 단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용 타이어도 초기에는 자전거의 타이어를 빌려 썼기 때문에 둥근 단면의 타이어를 단 차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자동차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타이어 역시 한동안 폭이 좁고 단면이 둥근 타이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자동차의 엔진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큰 힘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이어의 접지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자동차는 네 바퀴가 좌우 두 개씩 앞뒤로 나란히 위치해 있고, 충격흡수와 주행 안정성을 위한 서스펜션 구조가 발달하면서 차의 전후좌우 기울기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주게 됐다. 그래서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처럼 차체가 심하

게 기울는 일이 없으므로 이에 맞추어 타이어의 단면 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타이어의 접지면적이 넓으면 주행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승차감이나 연비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최근의 일반적인 승용차용 타이어는 이런 특성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평평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오래 쓰는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

흔히 '오래 쓰는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한 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다.

타이어의 수명이 길면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점에서는 분명 유리하다. 요즘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는 주머니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 때문에 좋은 타이어로 대접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이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할 수만은 없는 일.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재질이 무를수록 빨리 닳고, 단단할수록 천천히 닳는다. 이것 역시 타이어의 소재인 고무의 특성에 의한 것인데, 연필을 지을 때 쓰는 지우개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단단한 사무용 지우개는 한참을



써도 잘 닳지 않는 반면에 부드러운 미술용 지우개는 쉽게 닳아 없어진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사무용 지우개는 연필자국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반면 미술용 지우개는 대부분 말끔히 연필자국을 없애준다. 그만큼 무른 고무는 강한 마찰력을 일으켜 닳는 면을 꼭 잡아준다는 것이다.

고성능 차에 장착되는 고성능 타이어들의 경우,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무른 소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접지력을 살림으로써 차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경주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는 그런 점에 있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빨리 닳아 없어진다.

모든 자동차가 고성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무른 타이어 또는 금새 닳는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는 아니다. 그렇다고 딱딱한 타이어가 무조건 좋은 것도 분명 아니다. 타이어가 딱딱하다는 것은 지면을 움켜쥐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미끄러지기

가 쉽다는 뜻이다.

아울러 타이어는 차의 주행상태에 따라 적당히 변형되면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하는데, 딱딱한 타이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타이어가 나쁘면 승차감도 나쁘고 소음도 심해진다. 민감한 운전자들은 보통 타이어를 딱딱한 타이어로 교환한 뒤에 스티어링 휠(핸들)에 전달되는 진동의 차이를 쉽게 느낀다.

또한 타이어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딱딱해진다. 그래서 타이어가 노후되면 덜 닳게 된다.

하지만 천성이 딱딱한 타이어와는 달리, 늙은 타이어는 덜 닳는 대신 쉽게 부스러진다. 타이어가 오래 간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타이어의 선택은 용도와 경제력, 그리고 운전자의 취향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타이어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닌 적당한 것이 최고다.

〈출처: 현대자동차 사보 현대모터〉



토종 럭셔리 세단 에쿠스 판매율 30% 성장... 싸이 홍보도 한몫

Car & Life

푸엔테힐스 현대, 미 전역 에쿠스 1위 판매 기록

미국 자동차 시장의 프리미엄 고객들이 진가를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통(通)'한 것일까.

올해 대한민국 토종 럭셔리 세단 현대차 '에쿠스' 판매량이 작년 동기 무려 3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미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신형 에쿠스는 작년 한 해 동안 3,193대가 판매돼 당초 목표인 3천대를 훌쩍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963대가 판매되면서 작년 대비 29.8% 증가했다.

에쿠스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JD파워가 발표한 '2011 자동차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점 1000점 만점에 904점을 획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엔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오른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워싱

턴포스트지 등과의 언론 인터뷰를 비롯 미국 내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에쿠스를 타고 등장한 탓에 에쿠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후끈 달아올랐다. 싸이가 언론사에 도착해 에쿠스에서 내리는 모습과 의상과 짐을 트렁크에 넣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에쿠스의 세련된 디자인과 놀라운 성능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꾸준한 판매가 늘고 있다"며 "차별화된 고급 마케팅을 적극 펼쳐 점유율을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에쿠스'(Equus)라는 이름은 라틴어의 '개신 장군의 말'과 '천마(天馬)'란 뜻으로, 영어로는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독창적인 명품 자동차(Excellent, Quality, Unique, Universal, Supreme automotive)'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남가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푸엔테힐스 현대'는 올해 미 전역 에쿠스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에쿠스 전문 판매 딜러'로 자리매김했다.

푸엔테힐스 현대 찰리 정 매니저에 따르면, 미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현대차 에쿠스는 2011년형(배기량 4.6리터에 6단 기어)으로 처음에 500대가 들어왔다.

에쿠스는 판매 초기부터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과 함께 높은 판매율을 보이면서 명실공히 국산차의 자존심을 지켰다.

경쟁 비교 차종인 렉서스 LS 460, BMW 7시리즈, 벤츠 S클래스와 견줄만한 차종으로 럭셔리한 디자인은 물론 뛰어난 성능, 연비, 옵션 등 여러 방면에서 비싼 고급차에 뒤지지 않는 고품격 세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느 고급차에 비해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다. 5-6만불 대로 고급차의 반값 정도에 해당한다.

2012년형 에쿠스는 전년도 모델에 비해 기능면에서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고품격 프레스티지의 품격과 명성에 걸맞는 첨단 신기술과 국내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고급 사양

이 대거 적용됐다.

위험상황 감지시 엑셀 페달의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해 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연비 효율이 낮은 경우에는 엑셀 페달에 반발력을 주어 경제적 주행습관을 유도하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엑셀 페달(IAP)'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현재 출시 판매되고 있는 5.0리터에 8단 기어를 장착한 2013년형 모델은 이전 모델에 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

따라서 기존에 렉서스나 BMW, 벤츠를 리스해서 타다 재리스를 하

는 고객들이 주로 에쿠스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푸엔테힐스 현대에서는 에쿠스 차종 구입 고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인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 전담 담당인원이 방문해 차량을 인수하고 수리 후 다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는 신개념 무방문 정비 서비스다. 이밖에 5년간 요일 교환을 비롯한 모든 정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평생 무료 세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213) 276-8959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인회계 도와드립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태양광 에너지 전문 Tree Solar Inc

솔라 전기 컨설팅 회사

태양에너지 교육

James Han 310.991.2135
905 Diamond Ave, #9 South Pasadena, CA 91030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부/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Wirkstoff를 함유하여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원장 유익중

* 생활개선을 위한 치료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촌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499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문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제작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식은 살리니! 자동차 엔진 커버 \$3000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www.myopenbank.com



이 아이에게
물려 주고 싶은건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Min Kim
회장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2년 12월 31일까지 | 발표일자: 2013년 2월 28일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오픈뱅크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딜러에서는 경험할수조차 없는 다양한 혜택과 감동,
오늘 푸엔테힐스에서 누리십시오.



+ TAX(STK.050068)
\$596



골프장 무료 라운딩 쿠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11월 1일-31일)

평생 무료 세차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지 1년이 되셨습니까?
- 미국 현역 군인 이십니까?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다른 워런티를 사셨습니까? 등록비를 따로 내십니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다른 딜러들의 광고 가격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푸엔테힐스현대에서는 광고 그대로 드립니다.

2012 EQUUS ULTIMAT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66,650 / Residual: \$30,659 / T.D.O: \$5,399
Plus Comp Rebate /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ER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5개 획득

2013 SONATA GLS

2012 GENESIS 3.8L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121 + TAX(STK.558019)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20,010 Residual: \$12,326
T.D.O: \$3,999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246 + TAX(STK.203934)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35,210 Residual: \$17,253
T.D.O: \$3,999 /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길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